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타심과 자기통제에 의한 또래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Self-Esteem on Life Satisfaction: Verifying Moderated Mediation of Peer Relations Mediated by Altruism and Self-Regulation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박사수료 허미정**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박사수료 노미화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최연실***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Doctoral Candidate: Heo, Mi Jeong

Doctoral Candidate: Noh, Mi Wha

Professor: Choi, Youn Shil

목 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self-esteem on 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among adolescents, and to verify moderated mediation of peer relations mediated by altruism and self-regulation. **Method:** The study referred to the 2015 Annual Report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More precisely,

* 이 논문은 2014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주저자: wangonly@naver.com

*** 교신저자: yschoi@smu.ac.kr

report on the fourth year research process of the study cohort comprising 2,091 subjects was used to verify the research model. Overall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PSS 18.0 program and specifically, moderated mediation were verified by using SPSS Macro, as suggested by Preacher, etc. (2008). **Results:** As a result, firstly, the peer relation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among adolescents. Secondly, altruism and self-regulation had moderated mediation effects between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 among adolescents.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self-esteem affects on 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by mediation of peer relations among adolescents and altruism and self-regulation agent is applied positive adjustment to further promote the peer relations and increase life satisfaction among adolescents. Through these study results, the implications for counseling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주제어(Key words): 청소년(adolescent), 자아존중감(self-esteem),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이타심(altruism), 자기통제력(self-regulation), 또래관계(peer relations)

I. 서론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더 이상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주목할 점은 ‘교육’과 ‘생활양식’이나 ‘물질적 행복’과 ‘보건과 안전’ 영역은 높게 나타난 반면, ‘주관적 행복’ 지수의 세부영역인 ‘주관적 건강’, ‘학교 만족도’, ‘삶의 만족도’, ‘소속감’, ‘어울림’ 등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다는 것이다(Youn et al, 2014). 즉 우리나라 청소년은 학업성취수준과 객관적인 차원의 삶의 질의 수준은 높게 평가하는 반면 주관적인 차원에서 지각하는 삶의 질의 수준은 낮게 인지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이 자신의 삶의 질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배경에는 학업과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학교폭력, 갈등적 인간관계, 건전한 여가문화의 부재 등을 지적할 수 있다(Kim & Lim, 2012). 그러나 청소년들이 경험한 행복감은 성인이 된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Yang, 2008)을 고려한다면,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관심 이상으로 청소년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사회적, 학문적,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점나 병리적인 특성을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과 더불어 청소년의 강점과 적응적인 긍정적이고 측면을 찾아내어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발달과정에서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으나 모든 청소년들이 동일한 어려움을 경험하며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수준이나 경험하는 고통으로부터 보호요인들이 완충역할을 한다면 청소년들은 삶의 만족을 보다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Jung, 2014). 국내 많은 연구자들이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 현황(Kim et al, 2003; Lee, 2005)과,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Jang, 2010; Kim, 2010; Park & Bae, 2012)들이 무엇인지 알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Koh, 2012),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탐구하였다(Kim, 2007; Kim & Lim, 2012).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는 자아존중감(Koh,

2012), 자아탄력성(Kim & Lim, 2013) 등의 개인적 요인과 부모양육태도(Kim et al, 2014), 가족지지(Lee & Byun, 2007), 또래애착(Ko, 2008) 등의 관계적 요인이 영향을 준다. 그러나 삶에 만족하는 정도는 개인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결국 삶의 만족은 결정적인 상태가 아니며 청소년의 내적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이 있으므로(Fujita & Diner, 2005),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개인적 요인과 가족, 또래, 사회환경의 상호작용과 맥락적 관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인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 중에서 심리적 적응과 관련성이 높은 변인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 또는 삶의 만족과 상관이 있거나 예측력이 높은 선행변수로 논의되고 있다(Chung & Noh, 2007).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이나 삶의 질 간에도 정적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Kim & Chung, 2008; Sihm, et al, 2010; Sihm et al., 2012).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기초할 때,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유추해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 또래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심리내적 요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 Choi, 2013). 청소년기는 가족을 벗어나 점차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행복감의 50% 이상은 타인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Park et al, 2002). 청소년은 자신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며 자신을 이해 해주는 또래로부터 동질감을 형성하고(Hartup et al., 1993), 또래의 지원과 이해 및 사회적 지지를 얻게 된다. 또래 관계가 원만하고 또래애착이 높은 청소년이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2명

중 1명 이상은 또래관계에 의해 본인의 학교생활의 질이 결정된다고 인식(Kim & Park, 2004)할 정도로 또래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청소년기 주요한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 형성과 더불어 사회성과 독립성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더 나아가 이후 성인기의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는 이타적 성향과 관련이 높다. 이타적 성향이 높은 아이들이 또래 관계에 있어서 더 건강한 관계를 맺는다. 이타적 성향과 동기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좋고, 덜 폭력적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 또한 몇몇 연구에서 또래와의 관계가 좋지 못한 아동은 학업성취도가 낮고 중도 탈락하거나 이후 청소년 비행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Parker & Asher, 1987; as cited in Chung, 2004) 나타나기도 한다. Post(2005)는 이타적 성향과 행동은 정신적인 건강과 행복감, 그리고 궁극적으로 수명 연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한편, 또래친구와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은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Eisenberg와 Fabes(1992)는 자기조절능력이 낮고 부정적 정서 경향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은 낮아진다고 보고 했다. 친사회적 아동은 사회적으로 유능하며, 상대적으로 갈등을 적합한 방법으로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 나아가 자기조절능력은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족감을 높이고 긍정적 자기평가를 하게하며,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동기요인으로 작용한다(Kim, 1973; as cited in Kim et al., 2014).

삶의 만족도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예측하고, 자아존중감이나 자기신뢰와 같은 심리적 자원을 형성하게 한다(Koo, 2009). 또한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맺

고(Koo et al., 2009), 개인적 성취를 통해 사회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더불어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건강한 삶과 수명(Diener & Chan, 2011), 경제력(Marks & Fleming, 1999), 창의적 사고(Staw, Sutton & Pelled, 1994), 직업적 성취(Cropanzano & Wright, 1999), 그리고 친밀한 대인관계(Diener & Seligman, 2002)와 만족스러운 결혼생활(Harker & Keltner, 2001)을 이끈다. 즉 삶의 만족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향후 더 좋은 직장동료, 친구, 가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는 가족, 사회적 환경과 생태학적 관계 등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삶의 만족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내적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이 있음을(Fujita & Diner, 2005)고려할 때,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강화하기 위한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과 맥락적 관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개인과 부모의 요인에 국한되거나(Park & Yoon, 2013; Lee, 2009; Lee & Kwak, 2011; Jeoh et al., 2011), 인구학적 변인, 개인내적 변인, 대인간 변인을 다루더라도 각각 별개의 차원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적, 실천적 개입을 위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타심과 자기통제, 그리고 개별 변수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과 보고를 토대로 변수들 간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자아존중감이 이타심과 자기통제와 상호작용하여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한 이타심과 자기통제의 조절효과가 또래관계를 매개

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절된 매개모형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과 삶의 만족도

행복의 인지적 측면인 삶의 만족도는 자기 자신이 지각하는 삶의 환경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과 일치되는 경우에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하다고 느낀다(Pavot & Diener, 1993).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청소년이 느끼는 전반적 생활 만족도(Park & Yoon, 2013; Jeoh et al., 2011)로서, 자신의 모습과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다(Kim & Lim, 2012; Moon, 2012).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개인내적인 변인으로는 장기적 사고, 노력의 지속성, 대처능력, 적응력 등 개인의 능력 및 역량이 높을수록(Kwark, 1995; Lee & Kwak, 2011),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Kim & Chung, 2008), 낙관성, 외향성과 같은 성격변인(Kim & Hong, 2007)이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 변인으로는 가족관계에 대해 긍정적이고 가족기능이 높을수록(Hwang, 2011),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빈번하고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Jeoh et al., 2011)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또래관계는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Kwark, 1995), 또래관계의 구조적 속성이나 또래애착(Ko, 2008)등의 영향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삶에 만족하며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사회 환경이나 주변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자긍심, 삶의 목표, 개인의 통제력 등 개인의 심리적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한다.

2.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변인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존엄성을 부여하며, 개인의 행복·불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이다(Choung, 2004).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인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Moon, 2012)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나 삶의 질에 정적 관련성을(Kim & Chung, 2008; Sihm, et al, 2010; Sihm et al., 2012)가지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Koo et al., 2006).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여 능동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양육태도, 출생순위별, 사회경제적, 개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또래, 가족, 교사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한 아동은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는다고 지각한 아동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Karatzias et al., 2006),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나 삶의 질 간에도 정적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Kim & Chung, 2008; Shin et al., 2010).

2) 또래관계

청소년은 또래관계를 형성하여 소속감과 사회

적 관계기술을 발달시켜나간다.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잘 맺는 것은 청소년기 주요한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 형성과 더불어 사회성과 독립성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는 가정보다 또래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로 청소년기 경험하는 행복감에는 가정환경 변인보다 또래환경 변인이 더 높은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Chung, 2008). 또래관계가 원만하고 또래애착이 높은 청소년이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은 서로 관련이 있으며 긍정적 또래관계는 높은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또래관계는 낮은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다. 또래에게 수용될수록, 또래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Yoon et al., 2009). 또래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게 되면 또래 상호작용에 덜 참여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관점이 보다 부정적이었으며 성인기의 자기 가치감에도 영향을 미친다(Bagwell et al., 1998).

자아존중감은 친구지지와 행복감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여, 친구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았다(Shin & Lee, 2012). 또한 또래관계를 확장하여 가족, 또래, 교사, 이웃 등을 모두 포함한 사회적 관계에 대해 통합적으로 다룬 연구에서도 사회적 관계안에서 친밀하다고 느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이를 통해 삶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았다(Shin et al., 2012).

3) 이타심

Batson(1991)은 이타성향을 ‘보상 획득이나 처벌 회피 등 이기적인 목적을 두고 동기화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도와주는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이타주의적인 행동이라고 했을 때는 자기 자신의 이익 부분은 배제하고 순전히 자기희생적인 도움이나 명백한 외

적 보상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남을 도우려는 친사회적 행동이 있어야 한다(Batson, 1991; Eisenberg, 1986). 이타주의와 친사회적 행동은 서로 혼용되어 쓰이기도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타주의는 친사회적인 행동의 하위 개념으로 외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행해지는 자기희생적인 조력 행동으로 동기의 개념이다(Macintyre, 1967).

이타수준이 높을수록 또래집단과 높은 친밀감을 유지하며, 이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이 또래관계 인기도와 관련이 있으며, 인기가 있는 아이들은 비인기아보다 또래집단에서 협동, 양보, 돕기 그리고 나눔 등의 이타적인 행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Lee, 1999). 정서적 지원과 안정감 및 보다 성숙한 인간관계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데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또래관계기술이 필요하다. 또래관계기술은 친구를 만들고 또래관계유지를 위해 적절하게 행동하는 기술이며 또래의 괴롭힘과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이다.

4) 자기통제

자기통제(self-regulation)라 함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순간의 충동적인 욕구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자기통제 능력은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Choung, 2004). 청소년들은 발달적 특성상 급격한 신체적·정신적 변화를 겪고, 정체감 위기를 느끼는 시기이며, 따라서 성인에 비해 자기통제력이 약하다.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한 경우 충동적 표현으로 인해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은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상황에서도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한 특성을 보이게 된다(Son et al, 2006).

자기통제는 사회적 자아개념과 정적 상관관계

를 보여주고 있는데, 친구와 잘 어울리며 친구관계에 잘 적응한다고 지각하는 아동은 자기통제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에 비해 충동적이고, 무감각하고, 행동적이고, 위험한 모험을 선호하며, 순간적이고, 단순한 사고를 하게 된다(Ha, 2004). 또한 자기통제력이 낮을 때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대인관계와 낮은 학업성취, 사회적응력의 미숙과 문제해결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경우 충동조절 장애나 중독과 같은 문제 행동에 쉽게 빠질 수 있다(Kim & Choi, 2013). 이처럼 청소년의 자기통제 실패는 여러 가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경우 흡연, 음주, 약물남용 같은 다양한 행위들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Kim & Min, 1996). 또한 유년시절에 측정한 자기통제력이 청소년기나 성인초기의 범죄나 유죄판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자기통제력이 직장에서의 비행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Gibson & Wright, 2001; as cited in Min,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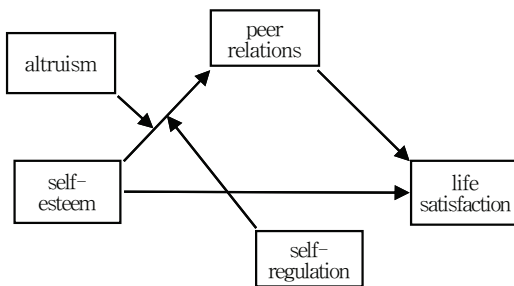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아존중감, 또래관계, 이타심과 자기통제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모형으로 독립변인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를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구조모형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서 자아존중감과 이타심, 자아존중감과 이타심, 자기통제력이 상호작용하여 또래관계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절된 매개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모형의 설계는 청소년기 다양하고 복잡한 심리적, 환경적 영향을 매개검증으로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서로 다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단일한 매개모형과 조절모형을 통합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검증하고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어 청소년의 이타심과 자기통제력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절된 매개모형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Figure 1> Research model

<연구문제 1>

1-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2>

2-1. 이타심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2-2.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2-3.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타심과 자기통제력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가?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5’의 자료 중 중학교 1학년 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추적 조사하는 단기 종단패널 연구로서,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0년 첫 조사를 시작하여 2014년도 5회 측정이 실시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도 5회 측정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2010년 중학교 1학년에서 2014년 고등학교 2학년이 된 학생 2091명(남학생 1067명(45.4%), 여학생 1024명(43.6%))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사용하여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였다.

3. 연구도구

1) 삶의 만족도¹⁾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5’에서 사용된 「삶의 만족도」 3문항 ‘나는 사는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를 사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리코딩하여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80$ 으로 나타났다.

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5’에서 사용된 「삶의 만족도」은 삶의 만족도(Kim et al., 2006)의 문항을 사용하였음

2) 자아존중감²⁾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5’의 「자아존중감」 10문항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리코딩하여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6$ 이다.

3) 또래관계³⁾

또래관계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2015’의 설문지 문항에서 「또래애착」으로 구성된 요인 중 의사소통과 신뢰에 해당되는 6문항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리코딩하여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9$ 이다.

4) 이타심⁴⁾

본 연구에서의 이타심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2015’의 설문지 문항 중 「공동체의식」에 해당되는 4문항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리코딩하여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이타심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43$ 이다.

5) 자기통제력⁵⁾

자기통제력 변인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 2015’의 「학습습관」 변인 11문항 중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6문항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리코딩하여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3$ 이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8.0과 SPSS Macro를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또래관계, 이타심, 자기통제력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여 정상분포가 가정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각 측정도구들의 신뢰도 검증을 하기 위해 내적합치도 계

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5’에서 사용된 「자아존중감」은 Rog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변안한 Behavioral Sciences, Korea University Placement(2000)의 문항을 사용하였음

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5’에서 사용된 「또래애착」은 Amsden & Greenberg(1987)의 애착척도(IPPA)를 변안수정한 Kim(1995), Hwang(2010)의 문항을 활용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과 또래신뢰에 해당되는 6문항을 ‘또래관계’변인으로 사용하였음.

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5’에서 사용된 「공동체의식」은 Kwon(2004)의 민주시민의 의식 조사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것을 ‘이타심’변인으로 사용하였음.

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5’에서 사용된 「학습습관」은 Yang(2000)의 자기조절 학습능력 측정도구 84문항 중, Kim(2006)이 요인분석을 통하여 재구성한 문항에서 동기조절과 행동조절 관련 문항을 중심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것을 ‘자기통제력’변인으로 사용하였음.

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으며,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과 Baron & Kenny(1986)의 인과관계 전략을 활용하였고, SPSS Macro 및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조절효과 검증에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평균중심화(mean-centering)하고 상호작용 변인을 만들고,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상호작용항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조절회귀분석에서 상호작용 효과(조절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고, 그 효과 크기의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상호작용 효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절변인을 평균값을 중심으로 고, 저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두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여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관계를 나타내는 기울기를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끝으로 Hayes & Mattes(2009)가 제안한 SPSS Macro를 사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Hayes(2013)는 많은 연구자들이 매개효과와 조절 효과에 관심을 기울이고 검증해 보지만, 이 두 효과가 통합된 모델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조건부 과정 모델(conditional process modeling) 또는 조건부 과정 분석(conditional process analysis)을 제안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와 정규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왜도와 첨도, 그리고 상관관계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경로모형에서 사례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면 왜도가 2를, 첨도가 7을 넘지 않으면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왜도에 있어서 모든 변수가 2이하로 나타나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있으며, 첨도에 있어서도 모든 변수가 7이하를 나타내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자

<Table 1> Mean, Standard Deviation, and Correlations of Variables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peer relations	altruism	self-regulation
life satisfaction	1				
self-esteem	.569**	1			
peer relations	.351**	.426**	1		
altruism	.209**	.287**	.342**	1	
self-regulation	.152**	.243**	.217**	.262**	1
M	2.80	2.99	3.16	2.96	2.45
SD	.590	.431	.464	.503	.554
Skewness	.090	.050	.096	.006	.042
Kurtosis	.152	.126	.604	.627	.159

** $p < .01$

<Table 3> Mediated Effect Significant Validation of Peer Relations

	Coeff	Boot SE	95%CI	
			Lower	Upper
peer relations	.048	.015	.051	.109

자존중감, 또래관계, 이타심, 자기통제력과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변인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152 \sim .569$).

2. 모형분석

1)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모형에 대한 검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전체효과(c)는 .569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수인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계수는 .426($p<.001$)이었다. 즉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긍정적인 또래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을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또래관계가 종속변수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경로의 회귀계

수는 .113($p<.001$)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의 효과를 고려했을 경우,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512($p<.001$)로 매개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쳤던 전체효과($c=.569$)에 비해 감소되었다. 이는 매개변수인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매개효과의 계수값인 .048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확인하였다. bootstrapping 방법은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obel 검증에 비해 분석 자료의 정규성 분포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bootstrapping 재 표본의 수는 5,000개였고, 95% 신뢰구간을 기준으로 하한값과 상한값을 <표 3>에 제시하였다. <Table 3>에서 알 수 있듯이 신뢰구간 95% 수준에서 하한값 .051과 상한값 .109 사이에 0의 값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인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청소년

<Table 2> Mediated Effect of Peer Relations

	Model I		Model II		Model III	
	life satisfaction		peer relations		life satisfaction	
	β	t	β	t	β	t
self-esteem	.569	31.603***	.426	21.507***	.512	26.021***
peer relations					.113	6.762***

*** $p < .001$

년의 삶의 만족도에 연결되는 매개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므로 부분매개모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의 관계에서 이타심의 조절효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이타심의 수준에 따라 상이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Aiken & West(1991)가 제안한 조절적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조절효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된 자아존중감과 이타심을 중다회귀방식에 대입하여 <Table 4>에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이타심만을 투입한 모형이고, 2단계는 상호작용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이다. <Table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호작용항이 추가로 투입된 되었을 때 설명량이 2.5% 증가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이타심의 상호작용효

과가 유의함에 따라 효과 크기 f^2 을 산출한 결과 $f^2 = .04$ 로 유의성의 임계치인 0.2보다 크기 때문에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즉,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이타심에 의해 조절된다고 할 수 있다.

Aiken과 West(1991)는 연속점수로 측정된 조절 변수의 경우 조절변수의 특정한 값(예: 평균값과 평균값 ± 1 표준편차)수준에서의 상호작용효과를 표로 제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조절변인이 평균값과 $\pm 1SD$ 값을 가질 경우, 이타심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인 단순회귀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Hayes와 Mattes(2009)의 Modprobe Macro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이타심의 조절효과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자아존중감과 이타심의 평균을 중심으로 $\pm 1SD$ 지점을 연결하여 그래프로 제시하면 <Figure 2>과 같다. <Figure 2>에서 나타난 두 단순회귀선의 기울기가 유의한지를 검증한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Table 5>를 보면 이타심이 평균과 $M \pm 1SD$ 인 집단 모두 95% 신뢰 구간 내에서 하한값(LLCI)과 상한값(LUCI) 사이에 0의 값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타심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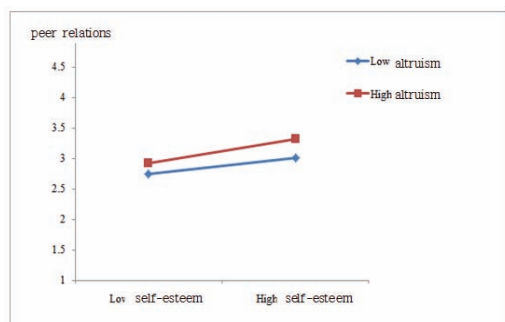
<Table 4> Moderating Effect of Altruism in Relation to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hips

	peer relations			
	Model I		Model II	
	β	t	β	t
self-esteem	.357	17.865***	.353	17.654***
altruism	.239	13.959***	.232	13.592***
self-esteem * altruism			.172	5.757***
R^2	.271		.296	
ΔR^2	.080		.025	
F	143.016***		64.115***	

*** $p < .001$

<Table 5> Significant Validation of the Value of Altruism Conditions

		B	SE	t	LLCI	ULCI
altruism	M-1SD	.3105	.0290	10.6914***	.2535	.3657
	M	.3798	.0215	17.6925***	.3377	.4219
	M+1SD	.4491	.0275	16.3092***	.3951	.5030

*** $p < .001$ 

<Figure 2> Moderating effect of altruism and self-esteem

즉,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단순회귀선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타심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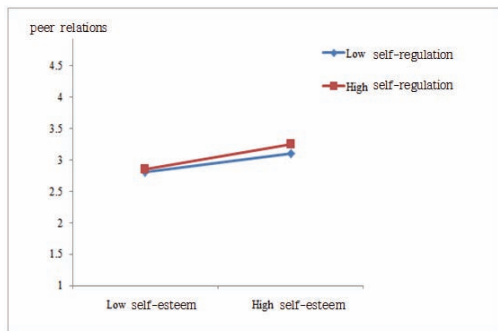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에 따라 조절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Aiken & West(1991)가 제안한 조절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조절효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된 자아존중감과 이타심을 중다회귀방식에 대입한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2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이 추가로 투입된 되었을 때 설명력이 1.3% 증가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함에 따라 효과 크기 f^2 를 산출한 결과 $f^2 = .02$ 로 임계치의 크기가 작은 수준에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즉,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자기통제력에 의해 조절된다고 할 수 있다.

<Table 6> Moderating Effect of Self-regulation in Relation to Self-esteem and Ppeer Relations

	peer relations			
	Model I		Model II	
	β	t	β	t
self-esteem	.392	19.144***	.399	19.441***
self-regulation	.121	5.926***	.111	5.366***
self-esteem * self-regulation			.071	3.536***
R ²	.191		.205	
ΔR^2	.125		.013	
F	39.118***		16.503***	

*** $p < .001$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의 평균을 중심으로 $\pm 1SD$ 지점을 연결하여 그래프로 제시하면 <Figure 3>과 같다. <Figure 3>에서 나타난 두 단순회귀선의 기울기가 유의한지를 검증한 결과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Table 7>을 보면 이타심이 평균과 $M \pm 1SD$ 인 집단 모두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 사이에 0의 값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기통제력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단순회귀선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3> Moderating effect of self-regulation and self-esteem

4)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타심과 자기통제력에 의한 또래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가 존재하는가를 확인하였다. 다음은 이 두 가지 효과를 결합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Hayes(2009)가 제시한 SPSS Macro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또래관계를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타심이 조절하는지 분석한 결과 <Table 8>과 같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정적영향을 미치는($t=23.417, p=.000$)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절효과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데($t=14.183, p=.000$) 있어 이러한 영향에 해당되는 이타심($t=2.178, p=.030$)과 자기통제력($t=2.021, p=.032$)이 커지면서 더욱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매개변수인 또래관계가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가 조절변수인 이타심과 자기통제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을 사용하여 조건적인 간접효과를 알아보았다. 즉, 조절변인인 이타심과 자기통제력의 평균을 중심으로 $\pm 1SD$ 값에서 간접효과가 통계적 유의성이 없음을 의미하는 '0'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Table 7> Significant Validation of the Value of Self-regulation Conditions

		b	SE	t	LLCI	ULCI
self-regulation	<i>M-1SD</i>	.3628	.0277	13.0793***	.3084	.4171
	<i>M</i>	.4297	.0221	19.4432***	.3864	.4731
	<i>M+1SD</i>	.4967	.0304	16.3301***	.4370	.5563

*** $p < .001$

<Table 8> Verifying Moderated Mediation of Research Model I

	dependent variable : peer relations		
	b	SE	t
constant	3.154	.010	322.408***
self-esteem	.367	.026	14.183***
altruism	.202	.024	8.434***
self-esteem * altruism	.112	.052	2.178*
self-regulation	.058	.020	2.887**
self-esteem * self-regulation	.085	.042	2.021*

	dependent variable : life satisfaction		
	b	SE	t
constant	2.272	.099	22.915***
self-esteem	.168	.031	5.345***
peer relations	.696	.030	23.417***

*** $p < .001$

<Table 9> Verifying Moderated Mediation on the Value of Altruism and Self-regulation

		indirect effects	boot SE	boot LLCI	boot ULCI
altruism	<i>M-1SD</i>	.053	.012	.035	.076
	<i>M</i>	.064	.013	.045	.087
	<i>M+1SD</i>	.076	.015	.053	.101
self-regulation	<i>M-1SD</i>	.061	.013	.040	.083
	<i>M</i>	.072	.014	.049	.096
	<i>M+1SD</i>	.083	.016	.058	.112

boot LLCI=boot 간접효과의 95%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boot ULCI=boot 간접효과의 95%신뢰구간 내에서 상한값.

<Table 9>에서 이타심과 자기통제력이 증가하면 조건부간접효과(boot 간접효과)의 값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뢰구간 내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면 또래관계가 좋아지고, 또래관계의 긍정적 경험들이 증가하면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매개효과) 이러한 매개효과는 이타심과 자기통제

력이 증가할수록(조절효과)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이타심,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이 상호작용을 통해 또래관계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경로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또래관계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래관계가 좋은 청소년들일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 청소년이 더 많은 행복감을 느낀다(Shin & Lee, 2012)는 선행연구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래 집단이 중요한 청소년시기에 소외를 당하거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사회적으로 위축되거나 공격적인 행동문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Lee, 2003). 반면, 또래애착이 안정적인수록 불안이나 우울수준이 낮고(Kim & Back, 2008), 또래 지지가 우울증상을 억제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Lee & Jeong, 2006).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의 일환으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또래관계가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에서 이타심과 자기통제가 이를 조절하여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즉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또래관계가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경로에서 이타심과 자기통제력이 조절변수로서 효과의 강도를 조절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타심과 자기통제력이 또래관계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적응기제로 작용하여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타심은 '순수하게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도와주는 행동'으로 청소년기 인지적 발달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도덕성발달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청소년기에 이타적인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뿐 만 아니라 성인 후기에 신체 및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Dillon, 2010; as cited in Cho, 2011).

자기통제력은 자신의 감정, 행동, 욕망을 통제하고 단기적인 쾌락과 만족을 미루는 능력으로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에서 발달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통제력이 또래관계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Roh, 2009)는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한다. 청소년들이 이타심을 키우고 자기통제력을 높여 간다면 또래관계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고,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경험은 삶의 만족도를 높게 될 것이다. 이는 실제 청소년들이 또래와 함께 활동하는 학교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더불어 청소년들의 인격 회복을 위한 이타심과 자기통제력과 같은 다양한 청소년의 적응적인 보호요인을 찾아 강화함으로써 학교장면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정서와 경험을 확장시키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이타심과 자기통제력의 상황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청소년기 발달단계와 밀접한 환경적 요인과 심리·정서적 상태를 고려하여 다양한 접근과 시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이 강조된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친밀하고 중요한 환경적 요소로서 학교에서의 긍정적 또래관계와 다양한 경험들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공감으로부터 이타심과 자기통제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자아존중감과 이타

심. 자기통제력 등이 학교현장에서 또래와 함께하는 작업을 통해 우선적으로 교육되고 훈련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임을 증명하고 있다. 더불어 청소년기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청소년기 중요한 발달과업인 또래관계를 더욱 긍정적인 형태로 기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이타심과 자기통제력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검증이 더욱 확장되어야함을 시사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일한 변인에만 초점을 두는 단편적인 접근에는 한계가 있으며, 청소년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또래관계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에서 이타심과 자기통제가 이를 조절하여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또래관계가 중요한 요인이며, 긍정적 또래관계 형성을 위해서 이타심과 자기통제력이 교육되고 훈련되어야 할 과제임이 증명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교육은 입시위주, 학업위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탐색하는 교육은 일회성 혹은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개인적 특성과 가족·환경적 요소,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의 상호 유기적 관계에서 형성될 수 있다. 학교 내에서 심성훈련과 같은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이나 체육과 체험활동 시간의 확대를 고려할 수 있으며, 방과 후 건전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도 필요하다. 또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기 자녀에 대

한 이해와 의사소통방법 훈련은 부모와 긍정적 관계와 지지를 경험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다. 그 외 학교 밖에서의 체험활동과 봉사활동 등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수용과 정체감 확립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를 증진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관계기술을 익히고 타인을 배려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타심 혹은 이타적인 성향을 갖은 청소년은 또래집단에 수용될 가능성을 높이며, 개인의 행복 뿐 만 아니라 집단과 사회전체의 안정된 행동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청소년의 이타심과 자기통제력을 증가시킴으로서 보호요인을 강화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학업위주의 교과목 외에 이타심과 배려를 다루는 윤리교육과 이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자기통제력은 학업성취 뿐 만 아니라 또래관계와 삶의 만족의 중요 변수로, 학습, 경험, 모델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훈련되어야 할 과제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연구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부분적 관련성만을 검증했던 선행연구와는 달리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경로와 구조를 조절된 매개효과를 통해 통합적으로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매개효과가 통계적 유의성은 검증되었지만, 사례수에 비례하여 그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통계적 유의성에 의해 왜곡될 수도 있는 학문적 오류를 다음 연구를 통해 더욱 세심하게 고려하고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모형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선행연구

에서 중요변수로 제시되었던 개인적 성격특성, 부모양육태도, 가족관계, 사회환경 등이 포함되었다면 연구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 후속 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요인들을 추가하여 변수들이 갖는 영향력을 파악한다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아존중감은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향상될 수도 있다. 즉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영역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는다. 넷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학업관련 변수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업관련 변수를 포함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종단적 자료를 활용한 시간적인 차이가 고려된 연구모형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수들 간의 관계와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 Newbury Park, CA: Sage.
- Batson, C. D. (1991). *The altruism questions: Toward a social -psychological answer*.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havioral Sciences, Korea University Placement (2000). *Handbook of Psychological Scale I*. Seoul: Hakjisa.
- Cho, H. C. (2011). *Developmental trajectory and predictors of adolescent drink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onbuk.
- Chung, E. E., & Noh, A. Y.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factors and married women's happiness: The moderating effects of individuality-relatedness and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6(1), 59-82.
- Chung, O. B. (2004). *Developmental Psychology*. Seoul: Hakjisa.
- Cropanzano, R., & Wright, T. A. (1999). A 5-year study of chan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ell-being and job performance. *Consulting Psychology Journal: Practice and Research*, 51, 252.
- Diener, E., & Chan, M. Y. (2011). Happy people live longer: Subjective well-being contributes to health and longevity. *Applied Psychology: Health and Well-Being*, 3, 1-43.
- Diener, E., & Seligman, M. E. (2002). Very happy people. *Psychological Science*, 13(10), 81-84.
- Eisenberg, N. (1986). *Altruistic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Hillsdale, NJ: Erlbaum.
- Eisenberg, N., & Fabes, R. A. (1992). *Emotion and its regulation in early development*. Jossey-Bass, San Francisco.
- Fujita, F., & Diener, E. (2005). Life satisfaction set point :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 and Social Psychology*, 88(1), 158-164.

- Ha, C. S. (2004). *Validation of Korean version of the self-Control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 Harker, L., & Keltner, D. (2001). Expressions of positive emotion in women's college year book pictur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ersonality and life outcomes across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112-124.
- Hartup, W. W., French, D. C., Laursen, B., Johnston, M. K., & Ogawa J. R. (1993). Conflict and friendship relations in middle childhood: Behavior in a closed-field situation. *Child Development*, 64(2), 445-454.
- Hayes, A. F., & Mattes, J. (2009). Computational procedures for probing interaction on in OLS and logistic regression: *SPSS and SAS implementation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3), 924-936.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 based approach*.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Hwang, H. W. (2011). A research on protective factors influencing on adolescents' quality of lif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3), 1-26.
- Hwang M. G. (2010). *Parent attachment, peer relations and the study of attachment and social anxiety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 Jang, H. S. (2010). The effects of achievement of developmental tasks in adolescence on 5-factor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elf-esteem and happines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3(2), 1-17.
- Jeoh, S. Y., Kim, H. Y., & Kim, M. (2011).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in the ecological contex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3), 87-98.
- Jung, M. K. (2014). Th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ocial compet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regulation in adolescents and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12), 49-72.
- Karatzias, A., Chouliara, Z., Power, K., & Swanson, V. (2006). Predicting general well-being from self-esteem and affectivity: An exploratory study with Scottish adolescents. *Quality of Life Research*, 15(7), 1143-1151.
- Kim, B. N., & Choi, H. I. (2013). Effects of study overprotective parent's raising attitude. University student's smartphone addic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9(1), 1-25.
- Kim, B. Y. (2007). *Differences i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optimism level of youth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m, D. S., & Min, S. H. (1996). *The effect of low self-control upon crime and delinquency*. Seoul: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im, H. W., & Hong, M. A. (2007). Exploration of the extents and factors explaining well-being among Korea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4(2), 269-297.
- Kim, J. Y. (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J. Y., & Chung, H. J. (2008). A Study on

-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for adolescent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13, 171-190.
- Kim, M. S., Kim, H. Y., Lim, J. Y., & Han, Y. S. (200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y Life and well being of korean.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316-317.
- Kim, N. J., & Lim, Y. S. (2012). The verification of intervening effect of youth activ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8), 219-240.
- Kim, S. Y. (2006). *A study on the difference in internet activities, self-control,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the level of internet addict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S. Y., & Back, H. J. (2008). The construction of Korean youth happiness index.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2(6), 140-173.
- Kim, S. Y., Lim J. Y., Kim, S. W., Bak S. H., Yu, S. Y., Choi, J. Y., Lee, G. Y. (2006). *Youth development indicators survey I*. Seoul: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Kim, S. G., Park, M. G., & An, J. S. (2014). The influence of school adjustment on life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64(2), 163-182.
- Kim, U. C., & Park, Y. S. (2004). The basis of trust in relationships: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of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0(2), 103-137.
- Kim, Y. H. (2010). The relation of daly stress and ego-resilience to the happiness of hildren and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 287-307.
- Kim, Y. M., & Lim, Y. S. (2013). Structural analysis of parental over-involvement, ego-resilience, school adjustment,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5(2), 343-366.
- Ko, Y. N. (2008). The relationship among father, mother, peer attach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15(2), 111-131.
- Koh, H. Y. (2012). *Parenting attitudes and middle school students' life satisfaction mediated by self-esteem and peer attach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Koo, H. Y., Park, H. S., & Jang, E. H. (2006). Satisfaction with life and It's predictors of Korean adolescents. *J Korean Acad Nurs* 36(1), 151-158.
- Koo, J. S., Lee, A. R., & Suh, E. K. (2009). Social consequences of happiness: Are happy people popular?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Social Issues*, 15, 29-47.
- Koo, J. S. (2009). Does happiness build psychological resource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3(1), 165-179.
- Kwak, K. J. (1995).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in terms of KLSSA.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Social Issues*, 2(1), 5-16.
- Kwon, H. W. (2004). *(A) Study on the democratic citizenship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B. J.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Popularity and Social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n Kwang University, Seoul.
- Lee, E. H., & Jeong, S. O. (2006). Ego identity as

- a mediator between parenting behaviors, peer relationships,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A Structural Equations Analysis. *Studies on Korean Youth*, 17(2), 213-239.
- Lee, H. E., & Kwak, Y. J. (2011).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in the early youth.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7), 59-83.
- Lee, J. H. (2003). *Children's perceived parenting, self-concept, Peer acceptance and behavioral proble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Lee, J. L. (2009). The influence of family resources on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Focusing on the difference in mediating effects size between parenting and private educa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1(1), 137-146.
- Lee, M. R. (2005). Relationships of self-esteem with family, friend, school, leisure, and job-related variables in early adolescence: Focusing on positive and negative self evaluations. *Studies on Korean Youth*, 42, 263-293.
- Lee, M. S., & Byun, M. H. (2007). The effect of family support toward adolescents on needs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2(1), 61-81.
- Macintyre, A. (1967). *Egoism and altruism*. In P. Edwards(ed.),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2, 462-466.
- Marks, G. N., & Fleming, N. (1999). Influences and consequences of well-being among Australian young people: 1980 - 1995.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 301-323.
- Min, S. H. (2006). The impacts of middle school students' self-control upon their crime and delinquency: Tests of causality and generality claims using the KYPs panel dat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3(6), 27-47.
- Moon, J. W. (2012). The effect of obesity, depression, self esteem, body image o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13(2), 119-146.
- Park, B. S., & Bae, S. W. (2012).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academic achievement on the subjective well-being among school adolescents - Comparison of gender and school type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4, 215-238.
- Park, S. H., & Yoon, C. H. (2013). The effects of personal and family variables on the school adjustment of 6th and 9th grade Korean students. *Studies on Korean Youth*, 70, 147-169.
- Park, Y. S., Kim, U. C., & Min, B. K. (2002). The influence of parental social support on self-efficacy and life-satisfaction: A longitudinal analysis of Korea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6(2), 63-92.
- Pavot, W. & Diener, E. (1993).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sychol Assess*, 5(2), 164-172.
- Post, S. G. (2005). Altruism, happiness, and health: It's good to be good.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2(2), 66-77.
- Roh, H. M. (2009). *Department of art therapy the effects of the person-centered group art therapy with theraplay on the emotional and social adaptability of the institutionalized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eungnam University, Yeungnam.
- Shin, H. S., & Lee, S. J. (2012). The effects of microsystem and self-knowledge

- variables on happiness perceived by adolescent.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6(4), 105-133.
- Shin, M., Jeon, S. H., & Yoo, M. S. (2010).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and wellbeing in youth.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9), 131-150.
- Shin, M., Jeon, S. H., & Yoo, M. S. (2012).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relationship, Self esteem, life satisfaction, and school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3(1), 81-92.
- Son, S. A., Ahn, K. S., & Kim, S. K. (2006). The study on psychological factors affecting the self regulation in adolescence. *Studies on Korean Youth*, 17(1), 127-148.
- Staw, B. M., Sutton, R. I., & Pelled, L. H. (1994). Employee positive emotion and favorable outcomes at the workplace. *Organization Science*, 5, 51-7.
- Yang, M. H. (2000).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elf-regulated learning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Yang, Y. (2008). Social inequalities in happiness in the U. S. 1972-2004: An age-period-cohort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3(20), 204-226.
- Yoon, M. S., Cho, H. J., & Lee, H. H. (2009). Effects of study stress and peer attachment on adolescent's depression: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net usage and alcohol use.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5(2), 131-156.
- Youn, Y. S., Kim, K. M., & Lee, M. R. (2014). *2014 Korea children. reported happiness youth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results*. Seoul: Yonsei University Institute of Social Development.
- 접 수 일: 2016. 01. 30
심 사 일: 2016. 02. 24
게재확정일: 2016. 03. 31